

# 백제 금속공예의 진수 금동신발 진품 만나세요



### 나주복암리고분전시관 20일부터 '신선이 되어' 전...8월 1일 이후 재현품으로 대체

1500년 전 삼국시대 금속공예 수준과 조형미를 엿볼 수 있는 '금동신발'이 일반에게 공개된다.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은 5-6세기 백제 금속공예 기술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유물이다. 삼국시대 고분에서 발굴된 금동신발 중 가장 완전한 형태를 갖춰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와 나주복암리고분전시관은 '신선(神仙)이 되어 하늘 나라' 전시를 오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개최한다.

금동신발 보물 지정을 기념해 나주복암리고분전시관에서 펼쳐지는 이번 전시는 일반에게 가치를 널리 알리고 공유하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은 대형 분구묘인 1호 석실에서 지난 2014년 발굴됐다. 5-6세기 영산강 유역에는 정촌고분 외에 복암리고분 등 대형 고분이

축조됐는데 그 가운데 정촌고분은 백제, 마한 문화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전시는 금동신발의 형태와 문양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무엇보다 신발에 담긴 다양한 문양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상상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삼국시대 고유의 금속공예품인 금동신발은 공주 무령왕릉을 비롯해 마한·백제권 지역에서 22점이 확인됐다. 그 가운데 정촌고분 금동신발은 좌우 신발 한 쌍이 거의 훼손되지 않은 완벽한 모습이었다. 발목끈이 부착되고 재료를 깎아 무늬를 낸 투각기법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과 유사한 기술과 문양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발등에 있는 용머리 장식은 현존 삼국시대

금동신발로는 유일하며 아울러 신발의 장식 효과를 높이는 측면에서도 변별이 된다. 옆면 판에는 육각형 문양이 연속으로 배치돼 있으며, 안에는 용, 봉황, 짐승, 새 등의 동물문양이 새겨져 있다.

이 같은 다양한 문양은 고인을 천상으로 인도하는 상징적인 장치로 여겼던 것으로 추정될 뿐 아니라 고대인의 사후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한편 이번 금동신발 진품은 개막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전시되며 이후에는 재현품으로 대체돼 전시가 이어진다. 같은 무덤에서 출토된 모자도(母子刀) 역시 함께 공개된다.

모든 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된다. 문의 061-339-1125.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최순임 작가의 '환상여행도' 전이 오는 8월8일까지 롯데갤러리 광주점에서 열린다.

## 소녀랑 고양이랑 '산수유람' 떠나볼까

### 최순임 전 8월 8일까지 롯데갤러리 광주점...조형·회화 등 70여점

최순임 작가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건 고양이와 소녀다. 새침한 표정의 고양이는 늘 어딘가로 떠나는 소녀의 근사한 길동무다. 그들의 여행은 과거로, 또 미래로 이어지며 동화같은 풍경을 만들어내고, 다채로운 이야기로 담고 있다. 소녀가 찾아가는 곳은 끝이없다. 역사속으로도 들어가고, 바닷속으로도, 우주로도 날아간다. 그녀의 발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여행자가 된다.

최 작가의 전시회는 평면 회화 작품 뿐 아니라 드로잉, 조각 작품까지 모두 만날 수 있어 감상하는 즐거움이 있다. 전남대에서 조소를 전공한 덕에 평면 화면에서 튀어나온 듯한 고양이와 소녀의 모습을 조각으로도 접할 수 있어 흥미롭다.

최순임 작가 초대전이 오는 8월 8일까지 롯데갤러리 광주점(롯데백화점 11층)에서 열린다. 롯데

갤러리가 오랜만에 기획한 전시로 아이들도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다. 조형, 회화, 드로잉 등 70여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의 주제는 '환상여행도'다.

최 작가는 '여행자의 노래', 'Von Voyage' 시리즈를 통해 한편의 동화같은 이야기를 풀어내왔다. 화려한 색감의 작품들은 화면에 생기를 불어넣고, 자신만의 상상의 나라를 펼쳐게 해준다.

최근작들은 산수, 탑, 꽃, 달항아리, 봉황 등 전통 소재들이 더해지면서 민화적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동화적 이미지를 넘어 넘어 배경으로 산수와 어우러진 작품들은 사교의 폭을 확장시킨다.

'산수유람' 작업에서는 수직으로 낙하하는 폭포, 부드럽게 드러나는 산 등 전통 한국화와 수묵의 방

식을 차용해 캔버스 위에 흑색과 금색 두 가지로 전작과는 다른 '차분한'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또 '백자 달항아리'에서는 삼층탑과 소나무 아래 고양이를 탄 소녀와 고양이의 모습이 인상적이며 평면 회화 작품에 직접 구운 도자기를 부착해 색다른 느낌을 주는 작품도 눈길을 끈다.

조각 작품으로는 말을 타고 오르는 소녀의 모습을 포착한 테라코타, 수중여행하는 소녀가 인상적인 '여행자의 노래' 등을 만날 수 있으며 전시장 한편에는 다양한 드로잉 작품 수십점이 전시돼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또 에코백, 티셔츠, 노트 등 최 작가의 작품으로 만든 다양한 아트 상품도 판매한다.

전남대와 동대학원에서 조소를 전공한 최 작가는 광주문화예술상, 오지호상 특별상, 광주시미술대전 특선 등을 수상했으며 광주시립미술관 국제 레지던시 요코하마 파견작가로 활동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보통의 날들을 버티게 하는 '우정스러움'

### 음악인 최고은·시인 김소연 무대...내일 오웬기념각

근대역사문화마을 양림동을 거점으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소개해온 '순수'는 지난 7년 간 '양림의 소리를 듣다' 등 다양한 무대로 양림동 주민들과 광주 시민들을 만나왔다.

올해도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기획중인 순수가 2021 시즌 첫 공연 'reAL II'를 선보인다. 'reAL II'는 광주 출신 음악인 최고은과 시인 김소연이 함께 준비한 공연으로 오는 17일 오후 7시 오웬기념각(광주시 남구 양림동)에서 열리며 24일에는 서울에서 관객과 만난다.

공연 제목인 'reAL II'는 'record everywhere ABOUT LIFE'의 약자로 '일상적인 장소에서 보통의 이야기를 기록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고은은 앞서 지난 2013년 'REAL I'를 통해 'RE(Record Everywhere)'를 주제로 코인 세탁소, 주얼리 공방 등 개인의 일상이 엮여있는 다양한 공간들을 담은 앨범을 선보였다.

이번 무대는 'AL(ABOUT LIFE)'에 초점을 맞춰 우리의 보통의 날들을 버티게 하는 삶의 태도인 '우정스러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곡들을 들려준다. 최고은이 몇 해 동안 '우정'과 연결된 조각들을 수집하고 비워내는 과정 속에서 남긴 곡들을 김소연의 미발표 산문과 함께 선보인다.

공연에서는 두 사람의 작품 중 동명의 제목을 지닌 산문과 음악 '오늘의 나는'과 '오늘의 난'을 선보이며, '미지근하게', '축제' 등의 산문과 음악 총 여섯 작품이 관객과 만난다. 공연의 시작과 끝은 김소연 시인의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로 장식한다. 이밖에 'reAL II'와 결을 같이 하는 최고은의 노래들을 폴랜드 사운드 드림을 들을 수 있다.

이날 공연장에서는 김소연 시인의 미발표 산문과 최고은의 노래 가사가 적혀있는 한정판 책자도 판매한다.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을 받는다. 문의 062-651-097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선교사·일본인에 비친 호남의 모습은?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강좌...22일~8월 17일

조선 선비에서부터 선교사, 일본인, 언론인 등에 비친 호남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김덕진)은 '백깃에서 본 호남, 그리고 광주' 주제로 오는 22일부터 8월 17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에서 강좌를 연다. 이번 강좌는 한국학호남진흥원이 후원하며 호남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기획됐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호남 역사문화 다시보기, 바로보기'(22일, 이해준 공주대 명예교수), '무등산에 다녀간 사람들, 그들이 보고 들은 것'(27일, 박명희 전남대 교수), '노사학과와 광주: 담대현에서 무등을 바라보다'(29일, 이향준 전남대 교수)가 열린다.

이어 '국내외에서 바라본 광주학생독립운동'(3일, 김성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상임고문), '선교사의 눈에 비친 광주'(5일,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 '야나기 무네키의 '전라기행' 속 전라도의 맛'(10일, 조인호 광주미술문화연구소 대표), '근현대 언론인들이 본 호남'(12일, 노영기 조선대 교수), '기록물로 광주의 경관을 보다'(17일, 류영국 한국도시계획학회 지식나눔센터장)가 펼쳐진다. 21일에는 화순, 보성지역 답사가 예정돼 있다.

선착순 40명이며 20일까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062-234-2727)으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 2만원(후원회원 1만원)이며 교재비와 답사비용 포함.

/박성천 기자 skypark@

## 공공기관·기업 임대 미술작품 공모

### 전남문화재단 19일부터

전남문화재단은 지역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예술작품 임대사업'에 참여할 미술작품을 공모한다.

'예술작품 임대사업'은 지역 작가들의 미술품을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 임대하고 임대 수익은 전액 작가들에게 지급, 미술작품 향유 및 창작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모집 부문은 시각예술 전 분야로 회화, 입체, 공예 등 제한이 없으나 평면작품의 경우 50호 이

상, 입체작품은 최장길이 2m 이내인 작품만 신청 가능하다.

7월 12일 기준으로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작가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19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희망자는 남도사이버갤러리에 작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프로필 및 작품 등록, 증명서류를 첨부해 응모하면 된다. 선정된 작품은 9월 중 광주 유스퀘어 갤러리에서 기획전시로 선보여지며 작가는 3년간 공공기관 등 작품임대 발생시 임대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남도사이버갤러리 참조.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수상 국제사립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